

**끼아라가 우리와 함께 얘기해요 <sup>1</sup>  
어려울 때도 사랑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고 다시 시작해요”**

**Chiara:** 네덜란드 4 젠 차례인데, 아, 여기 있네요.

**Laura:** 차오, 끼아라, 저는 라우라 예요.

**Traduttrice:** *끼아라, 항상 사랑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sup>2</sup>*

**Chiara:** 나는 이렇게 해요.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려 해요. 그런데 하루 중 이 사랑이 조금 식을 때가 있어요. 조금 쉬고 싶고, 항상 사랑하지는 않고 싶어지지요. 그럼 나는 다시 시작해요. 그렇게, 항상 사랑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해요. 이걸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어리고 사랑하는 것을 배웠지만 항상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좋은 습관이 들어서 저절로 모두를 사랑하게 되어요. 하지만 항상 다시 시작해야 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네덜란드 어린이?

**Michele:** 사랑하는 끼아라, 저는 4 젠이고 미켈레라고 해요.<sup>3</sup>

**Chiara:** 그래요.

**Michele:** *저는 항상 모두를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항상 참된 4젠이 될 수 있을까요?*

---

<sup>1</sup> Selezione di risposte di Chiara Lubich alle e ai Gen 4, a cura dei Centri Gen 4 – edizione 2021.

<sup>2</sup> Castel Gandolfo, 7 giugno 1998 – al Congresso Gen 4, domanda n.6.

<sup>3</sup> Loppiano, 18 aprile 2000 – all’incontro con i cittadini della Mariapoli Renata, domanda n.8.

**Chiara:** 참된 4 젠이라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질문과 거의 같은 질문을 며칠 전 로마에서 사무엘레라는 다른 4 젠이 내게 했어요. 그 4 젠은 지금 4 살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항상 모두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끼아라는 어떻게 모두를 사랑하세요?”라고 했지요. 그게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았을 거예요. 모두모두를 사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지금 집에 가면, 운전을 해 주는 엘리가 있는데, 나는 엘리를 사랑해요. 지금은 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엘리와 함께 가니, 엘리를 사랑해요. 그 다음 집에 가면 도니가 있는데, 도니를 사랑해요. 그 다음 지스를 보면, 지스를 사랑해요. 그 다음 집에 있는 다른 뽀빠들을 보면 이 뽀빠를 사랑하고, 그 다음은 저 뽀빠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뽀빠들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요... 그러면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해요. 알겠어요? 한 번에 한 사람씩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물었지요. “항상 참된 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해요. 그것이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이란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규칙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 알겠어요?

**Michele:** 네.

**Chiara:** 네게 미켈레 다음으로 두 번째 이름이 있다면, 그건 “다시 시작하기”라고 해야 할 거예요. (박수)

*저는 나폴리의 리디아예요. “끼아라는 날마다 거룩한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저도 거룩한 여행을 하고 싶어요.” 미국의 발레리아가 이 질문을 했어요.<sup>4</sup>*

**Chiara:** 자, 미국의 발레리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끼아라는 거룩한 여행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저도 거룩한 여행을 하고 싶어요!”

내게 한 가지 예가 떠올랐는데, 나중에 그걸 저기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자작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Gen 4:** 네! 아니요!

**Chiara:** [...] 이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 이 나무의 가지들은 모두 곧게 위로 쪽쪽 뻗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 나무 꼭대기에 있는 가지 하나를 잡아서 끌어당기면, 이 나무는 굉장히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땅까지 닿게 만들 수 있어요. 폭풍이 몰아쳐도 이 나무는 비바람

---

<sup>4</sup> Castel Gandolfo, 18 giugno 1988 – al Congresso Gen 4, domanda n.9.

에 가지가 완전히 땅에 닿도록 휘어지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여기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지요? 그런데 이걸 놓으면 가지는 “탁”하고 소리를 내며 곧장 제자리로 돌아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도 항상 밑으로 내려가요. 조금 용기가 꺾이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눈물이 나거나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많은 일이 생기고, 모든 것이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는 자작나무처럼 해야 해요. 잡았던 가지를 놓으면 곧바로 위로 올라가는 자작나무처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거룩한 여행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항상 다시 시작해요. 항상 이 이상을 다시 살기 시작해요. 자, 이제 보이네요. 여기 오른쪽에 자작나무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도 자작나무예요. 폭풍우가 몰아치자 가지가 휘어지기 시작해서 땅에까지 닿아요. 하지만 폭풍이 사라지고, 그렇게 우리의 고통도 사라지면, 순식간에 여기 그림처럼,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항상 다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위로 올라가요. 자작나무처럼. [...]

### 항상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묵은 사람”과 “새 사람”

**Giancarlo:** 차오 끼아라, 저는 트렌토 지역의 잔카를로예요. 때때로 동생들과 싸우고 나면, 하루 이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용서해 주기가 힘들어요. 끼아라, 어떻게 하면 동생들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동생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sup>5</sup>

**Chiara:** 알겠어요!... 가끔 동생들과 싸울 때 동생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잘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하고 물었어요. 나에게도 조금 화가 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묵은 사람이 우리를 이기고 밖으로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 보았어요. 내 안에 있는 묵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묵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항상 이렇게 해야 해요. 묵은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싸우고,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짓누르려고 해요. 이런 일을 하려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사람에게 “그만!”이라고 말하고 대신 사랑하기 시작해야 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하게 되면 점점 더 쉬워져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

<sup>5</sup> Castel Gandolfo, 18 giugno 1988 – al Congresso Gen 4, domanda n.16.

*가끔 내 마음 속에서 들리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제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묵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곤 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sup>6</sup>*

**Chiara:** 자, 마태오는 사랑하려 하지만 가끔 묵은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사랑하지 말아. 뭐 하러 사랑하니?"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해 주고 싶어요. 마태오,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군요. 항상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항상..., 이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 일생 동안 항상 다시 시작하면서 살아왔어요. 저기 두 어린이들을 보세요. 다른 어린이들은 아주 즐겁게 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들 속에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저기마치 두 개의 돌덩어리처럼 꼼짝 않고 서 있어요. 만일 이 아이들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계속해서 놀 수 있었을 텐데.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깨닫게 될 거예요.

**Emanuele:** 차오 끼아라, 저는 엠마누엘레예요. 9 살이고 인치사 시의 4 젠이에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화가 나서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곧바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sup>7</sup>*

**Chiara:** 보세요, 화가 났을 때 마음이 기뻐요?

**Emanuele:** 아니요.

**Chiara:**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고통이에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너는 마음 속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 드리세요. "예수님이시지요? 고통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 얼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세요. 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 그런데 '예수님'이에요, '고통'이 아니라 - 저는 예수님을 아주 사랑해요. "

<sup>6</sup> Castel Gandolfo, 8 giugno 1996 – al Congresso Gen 4, domanda n.6.

<sup>7</sup> Loppiano, 26 maggio 1996 – all'incontro con i cittadini della Mariapoli Renata, domanda n.12.

그리고 나서 다시 네 바깥으로 나와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를 사랑하세요. 동생이 있으면 동생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해요. 그러면 이 화나는 고통은 곧 사라질 거예요. 알겠어요? (박수)

*동생이 나를 물고 머리카락을 당기고 할 때, 어떻게 동생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sup>8</sup>

**Chiara:** 그럴 땐 이렇게 해야 해요. 동생이 물려고 하면 손을 빼어 이렇게 치우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요. “안돼, 안돼!” 동생이 머리카락을 당기면 손을 이렇게 잡고, 심각한 얼굴로 “안돼, 안돼” 하세요. 동생도 목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배워야 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어릴 때도 목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동생과 함께 웃는다거나, 함께 놀아준다거나 하세요. 하지만 동생이 그렇게 하려 하면, 심각한 얼굴을 하고 “하면 안돼, 안돼!”라고 하세요. 그러면 동생도 알아들어요, 알겠지요? (박수)

### “어려울 때 사랑하는 것은 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도와주어요 e”

*세상에는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적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4 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sup>9</sup>

**Chiara:** 여러분이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젠들, 잘 들어보세요. 평화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 안에 평화를 지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나에게 이렇게 묻겠지요.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화가 날 때나, 짜증이 날 때, 또 피곤할 때나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 그러니 먼저, 마음 안에 평화를 지니는 것이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이 싸울 때, 혹시 부모님이 다투시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이로 들어가서 두 분을 떼어놓고 이렇게 말하세요. “싸우면 안돼요. 평화를 지켜야 해요!” 그 다음에 일치된 세상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치된 세상은 항상 평화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평화를 위해 기도도 하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평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어린이에게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하지만 저기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를 갖게 되었네요.

---

<sup>8</sup> José C.Paz (Buenos Aires), 11 aprile 1998 – all’incontro con le comunità in Argentina, domanda n.6a.

<sup>9</sup> Castel Gandolfo, 18 giugno 1988 – al Congresso Gen 4, domanda n.7.

*끼아라, 왜 평화가 없지요? 우리 4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sup>10</sup>*

**Chiara:** “왜 세상에는 평화가 없나요? 우리 4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했어요. [...] 근데 왜 평화가 없을까요?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지 않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전쟁도 일어나게 되어요. 그런데 대신 사람들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 모두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거고, 그럼 곧바로 평화가 찾아 올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사랑의 행동을 할 줄 아는 여러분 4젠들이 이런 사랑의 행동을 하기 위해 아주 많이 노력해서 세상에 이 사랑을 가져다 주어야 해요. 그럼 평화가 찾아 올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이들을, 어린이들의 세계를 맡으세요. 우리는 어른들의 세계를 맡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요.

이 4젠이 말해요: “4젠인 제가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sup>11</sup>”

**Chiara:** [...] 평화를 건설하려면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건설해야 해요. 그러니 묵은 사람이 있을 때는 평화가 없어요. 마음이 동요되고, 걱정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묵은 사람은 마음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렌토, 리바델가르다에서 한 어린이가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끼아라, 마음 속에 묵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답해 주었어요. “열심히 사랑하도록 하세요. 동생에게 사랑의 행위를 하고, 또 다른 형제도 사랑하세요.” 이 어린이는 아주 흡족해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묵은 사람을 쫓아내야 하는데, 사랑을 시작하면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묵은 사람은 없고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도 그 평화를 건설해야 해요. 가령 집에서 동생들이 싸우면, 여러분은 “싸우면 안돼”하고 말해 주어야 해요. 중간에 서서 사랑으로 동생들을 달래야 해요. 너도 그렇게 하지요? 그래요.

아니면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서로 좀 말다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중간에서 “아니, 안돼요. 사랑해야 해요.”하고 말하세요.

---

<sup>10</sup> Castel Gandolfo, 8 giugno 1996 – al Congresso Gen 4, domanda n.1°.

<sup>11</sup> Rocca di Papa, 21 gennaio 1995 – all’incontro con la comunità della zona dei Castelli Romani, domanda n.2a.